



2007년 새해 캘린더를 선물 받았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부자 되세요!”라는 덕담을 담은 예쁜 신년 카드를 분주히 서로 나누게 되겠지요.

해마다 이 맘 즈음이면 마치 물컵에 반이 담긴 물을 보고 저마다 다른 시각을 보이는 것처럼, 현재 마음과 태도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혹은 긍정적이고 도전적으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을 달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아쉬움과 후회 속에서 2006년 한 해가 가려 하고 있다...

아니 부푼 희망과 바람 속에서 2007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

에 사회복지사의 소명의식을 떠올리는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삶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쉽게도 직장인으로서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돈을 모으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렇다할 조언을 받은 적이 없었고, 재테크에서 관심 갖는 것을 터부시하는 경향까지 있어서 경제적인 면에서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홀로 겪어야 했습니다. 중도에 몇몇 동료들은 경제적 곤란을 이유로 타 직종으로 이직을 한 경우도 있어서 보는 이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행복이란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의 조화 속에서 가능하다는 격언을 다시금 떠올려봅니다. 무엇이든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밸런스를 갖는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천천히 가는 것을 염려하지 말고, 멈춰 선 것을 두려워해라!

부자만들기 아카데미 선포식 개최, 12월 5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다!”

「사회복지사 부자만들기 아카데미」도 여러가지 염려와 기대를 안은 채 2007년을 향한 힘찬 출범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사회복지사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0여년 전 사회복지사로 첫 발을 내디뎠을 때를 떠올려봅니다. 좌충우돌 열정만 가지고 뛰어들다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았지요. 그때마다 많은 선배님들이 힘들어하는 후배의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바쁜 시간과 박봉에도 불구하고 초짜 후배를 격려하기 위해 소박하지만 정겨운 술자리를 마련해주며 일명 ‘술퍼비전’을 들려주었습니다. 정말이지 힘과 용기를 주고 동기부여를 갖게 해주는 멋진 수퍼비전이었습니다.

그 선배들을 통해서 얻은 노하우 중 하나는 지치고 힘들 때

최근 사회적으로 앞선 기관이나 기업에서 멘토링과 재무컨설팅 프로그램이 이목을 끌며 유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인 부분의 질적 향상은 물론이고 개인적인 삶에도 긍정적 변화와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늦기 전에 시작을 해서 참 다행입니다. 물론 아직 재무컨설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돈이 없는데 무슨 재무컨설팅이 필요하냐고 얘기하는데 그건 무지의 소치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재무컨설팅은 돈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막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적은 돈을 가지고도 시간을 적극 활용해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너무나 훌륭한 동료와 선배 멘토가 계셔서 굳이 앞에 나설 필요가 없지만, 물질적인 부분 즉 급여 생활을 하는 직업인으로서 하루빨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긴

노후를 준비하도록 돕는 일에는 아카데미가 멘토로서 목소리를 높이고 여러분을 안전한 길로 안내 할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한 전망이 사람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마치 도박과 같은 투자를 부채질하며 한방심리와 대박의 몽상을 비누 거품처럼 부풀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패신화에 빠진 사람들의 올인식 몰빵 투자 그리고 로또 복권, 주식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王大박 신드롬이 근검절약하며 열심히 모아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심지어 바보처럼 취급하는 못된 풍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빼돌어지고 왜곡된 재테크상이 우리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한편 우리 주변에 만연된 무관심과 부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언제나 열린 사고와 마음을 갖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에너지가 선 순환될 수 있도록 환경을 변화해야 합니다.

‘은퇴 후 차 상위 계층 보다는 차라리 수급권자가 되는게 더 낫다’ 얼마전 노인복지관에 재테크 강의를 하러 갔을 때 만난 후배 사회복지사가 노후를 걱정하며 내뱉은 부정적 농담이 앞으로는 썰렁한 말이 되도록 희망의 주사를 놓아 들이겠습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저금리, 고령화, 조기정년’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를 통



김창준 | 사회복지사 부자만들기 아카데미원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재정분과 위원장

해 멋진 반전을 이루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부자 만들기 아카데미」는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역자이고 주인이신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 가능한 많은 사회복지사들에게 인생설계에 따른 재무 목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첫번째 목표입니다. 재무 목표를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의 빈부 차이는 너무도 큼니다.

- 사후처리보다는 예방을 하고 안정된 미래와 노후를 준비하겠습니다.
- 돈에 대한 긍정적 패러다임과 좋은 습관을 갖도록 돕겠습니다.
- 컴맹탈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돈맹에서 벗어나도록 교육하겠습니다.
-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습우화의 토끼와 거북이가 보여준 교훈처럼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아카데미는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하쿠나마타타~! ■

사회복지사 부자만들기 아카데미 선포식 | 맞춤형 개인재무관리 컨설팅, 재무관리 교육 실시 등 활동 예정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12월 5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사회복지사 부자만들기 아카데미’ 선포식을 가졌다.

부자만들기 아카데미는 넉넉하지 못한 근무여건 속에서 나보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자칫 잃어버리기 쉬운 자신의 소중한 꿈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산관리 파트너이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부자만들기 아카데미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될 김창준 위원장, 연보홍 위원, 김현석 위원, 오승남 위원에게 위촉장이 전달되었다.

이들 위원은 앞으로 사회복지사만을 위한 온·오프라인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맞춤형 개인재무관리 컨설팅을 지원하며 개별 시설 및 기관 방문 직원교육, 각종 교육행사 시 재무관리 강사 지원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